

루카 파치올리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 고찰

A Study on Christian Thought Projected in
Luca Pacioli's Bookkeeping

이선복 동서대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루카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의 의미와 영향을 고찰해 보는 데에 있다. 파치올리는 1445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수학자이자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이다. 그는 1494년에 세계 최초 복식부기 내용을 담은『산술집성: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산술, 기하학, 비와 비례에 관하여)』를 출간하였다. 즉 산술집성 9장 11절은 당시 베니스 상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세계 최초 복식부기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상업적 계산과 기록(De Computis et Scripturis)’이란 이름으로 오늘날 기업회계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시, 근대 경제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산술집성을 통해 남긴 기독교적 사상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파치올리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탄생시킨 마르틴 루터,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이룬 존 칼빈과 동 시대의 사람이다. 또한 수학자인 동시에 수도사이다. 그럼에도 훗날 막스 베버(1904) 등에 의해, 이러한 종교개혁과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고 또 근대 경제산업의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달리, 파치올리에 대한 기독교 사상적 논의는 별로 없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루카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의 의미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산술집성에 기록된 복식부기의 개요를 회계학적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어 그 안에 투영된 기독교적 내용과 파치올리의 생애를 검토하여 기독교적 사상을 고찰하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 종교개혁가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마틴 루터 및 존 칼빈의 업적을 비교, 파치올리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재조명하고 하고 있다. 또한 부기서에 투영된 파치올리의 신앙고백을 통해 오늘날 회계담당자들이 배워야 할 윤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있다.

주제어: 루카 파치올리, 산술집성, 복식부기, 차변/대변, 기독교사상, 베니스 상인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루카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의 의미와 영향을 고찰해 보는 데에 있다. 파치올리(Luca Pacioli)는 1445년 이탈리아 산 세폴크로(San Sepolcro)의 보르고(Borgo)에서 태어난 수학자이자 프란체스코회(Francesco d'Assisi) 수도사이다. 그는 1494년 베니스에서 수학의 내용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산술집성: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산술, 기하학, 비와 비례에 관하여, 이하 산술집성이라 함)』은 출판하였다. 산술집성은 600여쪽에 이르는 백과사전으로, 특히 9장 11절을 보면 세계 최초의 복식부기로 불리는 내용이 기록되었다(고승희 2006, 김성숙외 2016). 즉 당시 베니스(Venice) 상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던 복식부기 회계장부 표시방법이 ‘상업적 계산과 기록(De Computis et Scripturis)’이란 이름으로 저술되었다. 그리고 이후 이 내용이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졌고, 오늘날 기업회계 근간을 이루는 복식부기 방법으로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파치올리가 세상을 떠난 지 500여년이 지났다. 많은 회계 실무자들이 그를 ‘회계학의 아버지(The Father of Accounting)’라 부를 정도로 파치올리는 업적을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복식부기서를 통해 남긴 기독교적 사상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는 당대 최고의 저술가로 수학자이자 프란체스코회 수도사이다.

본 연구는 이하, 루카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의 의미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파치올리 부기서의 개요와 회계학적 평가를 살펴본다. 3장은 부기서에 기록된 기독교적 내용을 고찰함으로 그의 기독교적 사상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생애를 통해 평가의 의미를 고찰한다. 4장은 앞서 제시한 업적과 특징을 특히 당시 마틴 루터(Martin Luther) 및 존 칼빈(John Calvin)과 비교, 종교개혁을 반영한 평가를 재조명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로 회계사상과 관련된 정기숙외(2002)의 ‘회계사상과 회계기준의 발전’, 고승희(2006)의 ‘회계사·회계사상사 연구 서설’, 홍정화(2013)의 ‘회계사상 및 제도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파치올리의 Summa 내용으로 Geijsbeek(1914)가 번역한 영문과 이원로(2011)의 한국어 번역, 가타오카(片岡, 1976)의 ‘파치올리 부기론 연구’를 참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관련 연구로는 권순백(2007), 윤석곤(2005), 김성숙외(2016) 등을 참조로 하였다. 해외 선행연구는 L. LAUWERS and M. WILLEKENS(1994)와 Adum Smith Ovunda(2015), 그리고 일본회계연구학회의 저널 “회계(1917-2000)” 제1권 1호-제158권 6호의 데이터 베이스 CD를 검색하여 검토하였다. 일본 회계저널은 파치올리를 키워드로 제목을 검색할 경우, 20편의 논문이 추출되었으며, 기타 이탈리아, 복식부기 등으로 검색함으로 추가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본연구는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대한 연구가 회계학적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학문과 신앙의 관점(이선복, 2021)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은 회계학자들이 파치올리 부기론을 연구하며 간과하기 쉬운 기독교적 사상의 가치를 재조명, 들어내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다.

II. 루카 파치올리 부기론의 개요와 회계학적 평가

1. 파치올리 부기론의 개요

파치올리(Pacioli)가 1494년에 출간한『산술, 기하, 비율 및 비례총람: Summa de arithmetica, geometria, proportioni et proportionalita,, 이하, Summa)』은 수학에 관한 입문 내용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으로, 총600여쪽에 이른다. 그리고 그 구성은 산술과 대수학, 상업에 있어서 대수와 산술의 이용, 부기, 화폐의 교환, 순수기하학과 응용기하학 5개의 논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복식부기로 불리는 ‘상업적 계산과 기록(De Computis et Scripturis)’ 이 <Table1>과 같이 36장으로 구성되어 기록되어 있다. 즉 제1장~제12장은 상인의 자세와 교훈, 제13장~제16장은 원장에 관한 내용, 제17장~26장은 상인들이 접하는 여러 문제와 거래의 유형, 제27장~제34장은 회계장부의 마감과 결산절차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Geijsbeek 1914, 片岡義雄 1976, 이원로역 2011).

<Table 1> 파치올리 부기론의 구성과 특징

구 성	내 용	특 징
제1장-12장	상인에 필요한 자세와 교훈: 회계장부 기록방법으로 원장, 분개장, 재산목록(동산,부동산), 일일거래내역, 인증을 강조하고, 차변/대변을 구분 표시한 복식부기방법을 제시	회계학의 근간인 복식부기 방법 (차변/대변)제시
제13장-16장	원장에 관한 내용: 원장의 작성방법과 분개장에서 전기되는 과정을 제시	회계순환과정 전기
제16장-26장	상인의 관련 기관 및 거래유형별 기록: 관청, 세관, 거래소, 조합과의 거래기록, 본지점의 운영, 출장거래, 은행등과의 회계장부 정리방법 제시	관청 및 특수상황 거래기록
제27장-36장	회계장부의 마감 및 결산절차: 이익과 손실, 손익금의 표시와 원장 마감, 차변/대변 총계의 시산표 작성, 부주의에 따른 오류, 장부심사, 장부 기록과 보관, 요약/결론	회계장부 마감과 결산방법

* 출처: 윤석곤(2005) 등을 참조로 연구자가 수정 재작성함.

첫째, 상인에 필요한 자세와 교훈으로, 파치올리는 회계장부의 기록과 유지가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즉 사업을 위해서는 현금과 신용은 물론, 회계장부가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1장). 그리고 그 내용으로 재산목록(2장)과 각 재산항목(채권과 재산, 화폐, 금은, 보석, 옷감 등 제품, 부동산, 토지, 은행예금, 채무 등)의 기록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3장). 또 회계장부 기록에 힘을 쓰되(4장), 영업일지와 분개장(Ledger), 원장(Journal)의 작성방법을 제시하였다(5장). 그리고 각론으로 일지 작성(6장, 관청에 제출해야 할 장부의 인증(7장), 현금거래와 외상거래 구분(8장), 상품의 9가지 매입방법(9장), 분개장(10장)의 기록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11장에서는 파치올리 부기론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거래의 발생을 차변(Per)과 대변(A) 2개 용어로 구분해, 복식부기원리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Per는 채무자란 의미로 오늘날 차변(Debtor)과 같이 왼쪽에 표시하고, A는 채권자의 의미로 대변(Creditor) 오른쪽에 표시하고, 중간에 이중사선(/)을 그어 양자를 구분하도록 하였다. 또

12장에서는 차변과 대변을 구분하여 분개장을 기록하되, 현금과 자본금의 의미에 대해 자세한 사례(예: Per 현금 // A 나 의 자본금)를 들어 설명하였다. 즉 상인에 대한 교훈에서부터 시작해 회계장부 기록의 중요성과 차변/대변의 구분에 의한 복식부기의 원리를 기술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둘째는 원장 및 분개장의 작성에 관한 것으로, 거래를 분개장에 기록한 후 원장에 전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13장). 이 경우는 원장은 색인 표시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을 알파베트 순으로 인명계정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14장은 분개장을 원장에 전기할 때 차변/대변 합계가 일치하고, 전기를 마감할 때 사선(/)을 그어 표시한다. 15장은 현금과 자본금 분개를 원장의 차변과 대변에 전기하는 방법, 16장은 상품관련 분개를 원장에 전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오늘날 기업회계가 회계순환과정에 따라 결산전에 표시될 분개 내용을 계정별로 구분해 원장으로 전기하도록 하는 과정을 제시한 것이다. .

셋째는 관련 기관 및 거래유형에 따른 기록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17장은 감독관청과의 거래 내용, 18장은 은행 및 관련 거래소와 거래, 19장은 어음 또는 어음이체 지급시 장부지급, 20장은 물물교환 거래, 21장은 조합거래, 22장은 가게비 및 경상비, 영업비, 임금 등의 기록, 23장은 본지점의 운영방법, 24장은 증서에 대한 은행의 기장과 환어음 거래, 25장은 손실과 이익 계정의 의미와 별도 원장 개설이유, 26장은 직접출장 및 위탁출장 시 등의 기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사업에 수행하면서 있을 세부적인 거래 유형과 감독관청과의 거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넷째는 회계장부의 마감 및 결산절차에 관한 것으로, 원장에 차변/대변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손실(Loss) 또는 이익(Profit)을 기록하고 자본금 계정으로 이체하도록 하였다(27장), 그리고 새원장의 작성(28장), 원장 연도표시(29장), 채무자 및 고용주를 위한 계정요약서(30장), 오류 교정(31장), 시산표 작성(32장), 결산 기간중의 거래(33장), 계정마감과 차대변 합계로 결산 및 장부기록 검증(34장), 문서 보관(35장), 요약(3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장부마감 및 결산절차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시산표에 표시된 차/대변 합계액의 일치 여부 검증을 통해 회계장부가 바르게 표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어, 오늘날 기업에서 진행되는 회계순환과정(Accounting cycle)의 기초가 이때부터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파치올리 부기론의 업적과 회계학적 평가

파치올리의 복식부기는 14세기 상업이 발달하였던 이탈리아 베니스를 중심으로 당시 상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던 회계장부법을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파치올리가 개발한 고유의 발명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당시 회계장부 중 예를 들어 ‘플로렌스’ 은행가의 장부기록(1211), ‘베네상회’의 판매기록(1318), 제노아 시정청원장의 ‘바카’계정(1340), ‘도나도 솔란쪼’ 형제상회의 장부(1406), ‘바바리고’ 상회의 회계장부(1430) 등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승희, 28-36). 이들 회계장부는 여러 형태의 복식부기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파치올리의 복식부기가 높게 평가되는 이유는 산술집성이 회계장부에 머무르지 않고, 책으로 출판되고 유럽 각국어 번역되어 회계실무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관례였던 라틴어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어를 사용해 저술하였다.

이와 같은 복식부기의 출현에 대해 회계사학자인 울프(A.H. Woolf, 1912)는 회계의 역사는 문명의 역사이고,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발달해 온 시대의 산물로서, 중세 상업과 무역거래가 발달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독일의 경제학자 좀 바르트(W.Sombart, 1921)는 복식부기에 대해 경제적 현상을 하나의 기술적 조직으로 정리하는 것이며, 합리적인 사고 즉 모든 현상을 수량으로서 파악하는 사고로 자본주의 제도의 형성과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높게 평가하였다(고승희, 28-36).

Ⅲ. 루카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

1.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

파치올리(Pacioli)는 프란체스코회 수도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제 서품을 받은 수도사이다. 따라서 그가 저술한 복식부기서인 산술집성안에 여러 형태의 기독교적 표현과 그의 신앙고백이 발견된다. 본 3장에서는 2장에서 서술한 회계학적 관점의 평가에 이어,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적 사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파치올리의 산술집성 복식부기 부분은 총 36장으로 구성, 다음과 같은 기독교 관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첫째, 파치올리는 제1장에서 훌륭한 상인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먼저 현금과 신용, 회계장부의 기록을 들었다. 즉 현금이나 회계장부의 기록만큼 신용을 중시하고, 또 이것이 기독교 신앙(Christian religion)과 관련이 있음을 기술하였다.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without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는 신앙고백이 상인과 회계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요소임을 제시하였다. 둘째, 회계 장부의 시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with the name of God) 함께 함을 표시하게 하였다(2, 3장, 12장). 즉 모든 사업의 시작을 신앙 안에서 하도록 습관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광을 약속하셨듯이 사업에 필요한 법을 알기에 힘쓰고, 게으르지 말며, 시간을 허비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없음을 경고하였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해 용감히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권면하였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며, 경건 생활에 힘을 쏟음으로 자신의 길과 자비, 재산을 잃지 않음을 강조하였으며, 마태복음 본문을 인용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는 경영지침을 제시하였다. 또 7장 상업장부의 인증에서도 장부를 인증 후 보관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관,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기독교적 사상을 읽을 수 있다. 셋째, 파치올리는 영업일지와 원장을 작성하며 장부가 바뀔 때마다 시작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십자가(✠) 기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6장, 13장). 즉 회계장부를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십자가를 표시함으로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정결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31장에서는 기록을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수한 부분과 교정을 한 부분에 십자가(✠) 기호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결산중에 거래가 발생해 새장부에 기록하는 경우 구장부에 십자가(✠) 기호가

있는 경우, 새장부 기호는 문자 A로 하도록 하였다(33장). 넷째, 장부를 마감하고 손익을 결산하는 상황으로 파치올리는 차변합계가 대변합계보다 큰 경우 발생한 순손실을 자본금 계정에 이체 반영하되,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업을 한 경우라면 순손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하였다. 또한 장부를 마감하며 차이가 나면 원장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배운 회계지식으로 오류를 찾아낼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길 바라면 끝을 맺었다(34장). 또 마지막으로 모든 편지와 증서, 판결문 등을 써 장부를 보관할 때에도 날짜와 이름을 쓰되, '☞ 1494년 4월 17일 베니스'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거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35장).

2. 파치올리의 생애를 통해 추가적 기독교 사상 고찰

파치올리는 당대의 뛰어난 저술가로 수학, 신학, 건축, 군사전략, 스포츠와 게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는 학자였으며, 플로렌스, 밀라노, 페루치아, 나폴리 및 로마 등 5개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수도회와의 관계와 책임에서 높게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그는 1464년의 Paul II 세로부터 시작하여 50년 뒤의 Sixtus IV 세까지 일곱명의 교황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었다. 그럼에도 1470년대에 입문한 프란체스코 수도회로부터 한번 파문의 위협까지 받은 적이 있다. 이하, 본장에서는 부기론에 투영된 파치올리의 기독교 사상에 이어 그의 생애(生涯)를 통해 기독교 사상의 배경을 추가로 고찰한다.

파치올리(Luca Pacioli)는 1445년에 이탈리아의 소도시 산 세폴크로(San Sepolcro)의 보르고(Borgo)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고향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유년시절, 그는 문법과 수사학(서류작성과 편지쓰기), 변증학(논리학)을 배웠으며 또 성경과 수도회의 가르침에 따라 엄격한 훈련을 받았다(정기숙외, 82-88), 그리고 1470년에 베네치아를 떠나 로마에 가서 교황 바오로 2세의 공문서 보관소장이며 건축가였던 알베르티(Leone Battista Alberti)의 집에서 몇 개월간 머무르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는 1472년 알베르티가 사망하자 신학을 공부한 후 프란체스코 수도회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프란체스코 수도원은 1209년에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Sanctus Franciscus Assisiensis)에 의해 '작은 형제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즉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물들어 또 하나의 권력이 된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 영적 쇄신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극도로 청빈한 삶을 추구하였다. 또 수도사들은 거리의 설교자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며, 가난한 사람이나 병이 든 사람, 특히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데 주력을 하였다. 즉 파치올리의 기독교적 신앙은 이때 형성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파치올리는 수도사로서의 청빈한 삶을 살기보다는 학자로서 저술을 하고, 특히 15세기 라틴어로 기록된 책들을 자국어(vulgar tongue)로 저술하여 많은 사람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는 19세인 1463년에 베네치아의 부유한 상인 롬피아시(Antonio Rompiasi)의 세 아들의 가정교사를 하며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산술책이다. 그는 주인의 사업을 도우며 부기를 배우며 경영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으며, 또 이것이 후에 산술집성과 같은 복식부기서로 출판되며 '회계학의 아버지'라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파치올리는 1496년에 루도비코의 밀라노 궁전에 수학교수로 초청받게 되고, 루도비코의 제안에 의하여 신성비례(神聖比例)라는 책을 이곳에서 저술하였다. 그는 수학을 가르치며 이론이 중요하지만 실제 활용할 수 없다면 가치가 없다 하며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수학 교재인 신성비례에서도 황금비를 소개하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Holy Trinity) 하나님의 속성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불변성과 무소부재 하심을 예를 들어 길이와 비율 등을 설명하려 노력을 하였다. 즉 신성비례에서도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그의 학문적 특징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이때 왕실에서 유명한 화가 Leonaud da Vinci를 만나 교류를 갖고 수학을 가르쳤다. 그리고 1499년부터 1506년까지 플로렌스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 게임 관련 책을 저술하고, 1500년에는 블로나대학, 1506년부터는 피사대학에서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강의하며 이탈리아로 번역을 하는 등,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있으며 평생 많은 저서를 남겼다¹⁾. 그는 학자로 뛰어난 명예와 또 부(富)를 누렸다. 특히 1508에는 교황 Julius II세로부터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대칙서를 받았다. 그리고 70세가 되던 1514년 교황 Reo X세에게 로마대학 교수로 임명을 받고, 또 유럽 다수의 대학으로부터 특별교수(distinguished professor)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의 이러한 모습은 비판을 사기도 하였다. 그는 1491년 프란체스코 수도회로부터 종교관련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편지를 수차례 받았다. 수도회에서 파문을 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위협을 당해, 친구인 교황 Innocent VIII세 중재에 나서기도 하였다. 그는 인생의 말년인 1510년에 수도원의 책임자가 되었으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지도력의 문제로 수도원으로부터 냉대를 당하기도 하였다. 청빈의 삶을 추구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중점을 둔 수도원의 강령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의 삶과 충돌을 일으키고 미움을 사게 했던 것 같다. 그는 1511년에 죽으면 산 새폴크로에 매장하고 묘비를 세워줄 것을 당부하는 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1515년에 생을 마감한 그의 유서는 지키지지 않았고, 1878년이 되어서야 기념비가 세워졌다(정기숙외 82-88, 김성숙 172-177)

IV. 루카 파치올리의 업적과 기독교 사상, 평가

아래 사진은 1495년경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 자코포 데 바르바리(Jacopo de Barbari)에 의해 그려진 파치올리의 초상화이다. 그의 제자 그이도발도(Guidobaldo)에게 유클리드 기하학인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나폴리 국립 미술관에 진열되어 있다(R.Emmett Taylor: 1955, 片岡泰彦역 2017).

1) 파치올리의 저서는 다음과 같다. ①1470년 대수학, ②1476년 정방형(regular bodies), ③1480년 Euclid의 기하학 번역, ④1481년 대수학, ⑤1494년 Summa, ⑥1504년 La Scula Perfetta Dei Mercanti, ⑦1505년 Schifanoia, ⑧1508년 De Viribus Quantitatis ⑨1509년 De Divina Proportione, ⑩1509년 Canmanus' Euclid ⑪1523년 Summa 2판(정기숙외, 78-79).



파치올리는 다양한 업적을 인정 받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삶을 통해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종교적 신비주의자 또는 이단자, 전통주의자 또는 인습 타파주의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장에서 살펴 보았드시 파치올리는 회계학의 발전과 근대산업사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파치올리의 복식부기서가 당시 베니스 상인 사이에 이루어지던 회계장부 기록방법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만의 독창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그의 복식부기서는 1543년에 임핀(Ympyn)에 의해 네덜란드어와 프랑스로 번역을 이루어졌다. 또 1544년에는 영어로, 또 독일, 스페인, 러시아 등으로 급속히 번역되고, 영국의 산업혁명과 미국의 경제발전과정을 통해 세계 주류 회계처리 방법으로 정착을 하게 된 것이다. 파치올리의 부기서는 발생한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하는 점에서,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단순히 표시하는 단식부기 방식과 크게 다르다(이선복, 2021a), 또한 발생한 거래를 영업일지에 표시하고, 분개장과 원장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산출된 이익과 손실의 개념을 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오늘날 진행되는 회계순환과정의 방법과 거의 같고, 또 이익개념을 기초로 자본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주의 교회의 틀을 다진 칼빈의 교리와 연결해도,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소명으로 부지런히 일하고 바른 물질관에 따라 저축을 하고, 이 저축이 자본으로 모여져 근대자본주의 산업발전에 기여하였다는 논리와 일맥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즉 파치올리가 복식부기서를 통해 이익과 자본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을 또 하나의 성과라 하루 있다.

둘째,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본 파치올리의 부기서는 회계처리방법과 모든 기독교적 내용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우나, 그럼에도 상인 및 회계담당자가 어떠한 자세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할 것인가 윤리적 측면에서 신앙고백을 기초로 제시하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그는 거래를 기록하고 회계장부를 작성함에 있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 모든 사업을 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할 것을 습관화하고, 경건생활에 힘쓰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을 더 채워 주신다는 경영지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돌아보며 회계장부를 새롭게 작성하고 오류를 수정할 때마다 십자가(✠)의 기호를 표시함으로 스스로 정직하고,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음을 알 수 있다. 즉 파치올리는 스스로 기독교 신앙교육과 훈련을 받은 수도사

로서 상업적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것이 먼저임을 자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찬양하며 선한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교리에 있어서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고백함으로, 당시 부패하여 면죄부 등을 판매던 가톨릭교회의 행위나 구원론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은 존 칼빈의 구원론과 같은 입장이었을 읽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파치올리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는 것으로 그는 위와 같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 당시 종교개혁에 기여한 마틴 루터(Martin Luther)나 존 칼빈(John Calvin)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마틴 루터(1483-1546)의 경우 1517년에 '면죄부에 관한 95개조 반박문'에 내걸어 종교개혁에 탄생시켰다(김주한, 2002). 그리고 존 칼빈(1509- 1564년)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 이를 보다 엄격한 교리로 발전시켜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를 이루었다(원광연역, 2018). 또 이러한 칼빈의 교리는 막스 베버(1904)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연결되어, 근대자본주의를 발전시킨 주역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다(박성수역, 2021). 그러나 파치올리의 경우 복식부기서인 산술집성을 통해 근대산업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사상의 관점에서는 높게 평가되지 못함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을 2개를 제시한다. 첫째는 파치올리의 생애와 삶에 대한 것으로, 그는 수도사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청빈한 삶과 복음전도자의 삶을 요구 받았지만, 왕성한 저술활동과 강의를 통해 당대 최고의 학자로서 부와 명예를 얻었다. 또 이탈리아 출신으로 교황과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함으로, 환경적으 볼 때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가의 대열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파치올리 부기서의 번역과 관련한 문제로, 그의 책은 출판과 더불어 유럽전역으로 확산되어 번역되어졌다. 그러나 번역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회계적인 기법을 강조할 뿐 그가 어떠한 기독교적 사상에 기초해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작성하였는지 윤리적 관점에서의 신앙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V. 결 론

부기(bookkeeping)란 어떤 개인이나 조직에서 발생한 거래를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절차로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나뉘어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의 복식부기서 불리는 파치올리의 저서, 산술집성중 부기서 부분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당시 중세시대 상인들 사이에 발생한 거래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 분개장에 기록하고, 또 이를 원장에 전기해 시산표로 집계하는 일련의 결산 절차가 오늘날 기업회계에서도 사용하는 것과 같음을 확인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자본에 반영되어, 자본이 형성과 축적과정을 설명한 점 또한 파치올리의 큰 업적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특징은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대한 평가가 회계학적 관점을 넘어, 기독교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살펴 본 점에 있다. 파치올리는 종교개혁자인 루터 및 칼빈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독교적 사상을 기억하는 사람은 적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복식부기서에 투영된 그의 신앙고백과 구원관, 또 회계장부가 시작될 때마다 십자가를 표시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통해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으며, 또 모든 기록에 있어 정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법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이러한 마음과 윤리적 자세는 파치올리가 소천한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자세요, 또 존경할 만한 신앙적 가치관이었음을 독자와 회계실무자들에게 제시하고 싶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권순백(2007), 베니스식부기법의 생성발전과 현대 복식부기법의 형성과 전망, **경영교육연구**, 48, 1-24
- 김성숙·강미경(2016), Luca Pacioli 루카 파치올리, **한국수학사학회지**, 29(3), 171-188
- 김성영·고성삼·박용규·서대천·주도홍(2017), **종교개혁 길 위를 걷다**, 두란노
- 김재진(2002), **기독교와 경제**, 도서출판 셋
- 김주한(2002),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 이야기**, 대한기독교서회
- 원광연역.(2018), **기독교 강요**, John Calvin(1559),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 윤석근(2005), 파치올리 부기론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컴퓨터정보학 논문집**, 10(3), 297-306
- 이선복(2018), 교회 내부통제제도와 회계감사에 관한 소고, **로고스경영연구**, 16(1), 31-46,
- 이선복(2019). 성경적 관점에서 본 회계윤리, **로고스경영연구**, 17(1), 1-20.
- 이선복(2020), 종교인소득 과세의 성경적 의미와 실무 적용방안, **로고스경영연구**, 18(1), 166-186,
- 이선복(2021.a), 교회와 선교단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 Excel 활용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9(1), 19-40,
- 이선복역(2021.b), **3분변증: 성경의 관점에서 나아갑시다**, 中川健一(2019), **3分でわかる聖書**, 도서출판 디자인
- 이선복(2021.c), 학문과신앙의 과목도입 성과 : D대학 사례, **신앙과학문**, 26(3), 125-155
- 정기숙·박해근·이중희(2002), **회계사상과 회계기준의 발전**, 경문사
- 최용준역.(2013). **신앙과 학문의 통합**, Robert A. Harris.(2004).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rning*,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 한국기독교학생회(2004). **IVP 성경신학사전**, T. Desmond Alexander(2000).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서울: Korea Inter Varsity Press
- 한국칼빈학회(2006), **칼빈연구 제4집**, 한국장로교출판사
- 홍정화·장영란(2013), **회계사상 및 제도사**, 도서출판 두남
- 渡部義雄(1918), 複式簿記と單式簿記との區別につきて、會計(日本會計研究学会)、3(2)
- 黒澤清(1933), 複式簿記の發生史的考察、會計(日本會計研究学会)、33(3)
- 黒澤清(1936), パチ ョーリ複式簿記積義、會計(日本會計研究学会)、28(2)
- 本田利夫(1940), 伊太利に於ける複式簿記の經濟的發展、會計(日本會計研究学会)、47(2)
- 片岡義雄(1950), パチ ョーリ「簿記論」の一駒、會計(日本會計研究学会)、57(4)
- 泉谷勝美(1968), パチ ョーリ「簿記論」とベニス式簿記、會計(日本會計研究学会)、93(4)

- 片岡泰彦(1970)、パチョーリを求めて、会計(日本会計研究学会)、98(1)
- 片岡義雄(1976)、パチョーリ『簿記論』の研究、森山書店
- 小島男佐夫(1983)、ルカ・パチョーリ-その生涯と「簿記論」、会計(日本会計研究学会)、123(2)
- 片岡泰彦(1992)、パチョーリ簿記論と初期ドイツ簿記組織との関連性、会計(日本会計研究学会)、142(6)
- 片岡泰彦(1994)、パチョーリ簿記論の特徴に関する問題点、会計(日本会計研究学会)、146(5)
- 岸悦三岡(1994)、パチョーリ簿記論の成立、会計(日本会計研究学会)、146(3)
- 久野光朗(1994)、パチョーリ簿記論の成立、会計(日本会計研究学会)、146(5)
- 久野光朗(1994)、修道士ルカ・パチョーリ奉賛と特別世界会議とイタリア周遊の旅「簿記論」、会計(日本会計研究学会)、123(2)
- 渡邊泉(1994)、ICAS主催「パチョーリ五百年記念祭」に出席して、会計(日本会計研究学会)、145(6)
- 吉田千草(2000)、ルカ・パチョーリ『算術・幾何・比及び比例全書』(第2版)1523年、トスコーノ、パガニーニ二刊、明治大学、[www.lib.meiji.ac.jp > about > publication > toshonofu > luca2](http://www.lib.meiji.ac.jp/about/publication/toshonofu/luca2), 119-134
- 染谷恭次郎(1994)、ルカ・パチオリの簿記書-複式簿記の源流をたずねて__core.ac.uk> download > pdf、1-14
- 日本パチョーリ協会(2011)、ルカ・パチョーリ、paperzz.com > doc > ルカ・パチョーリ-日本パチョーリ協会、1-5
- 片岡泰彦(2017)、ルカ・パチョーリの生涯、**Accounting, Arithmetic & Art Journal** No.33、1-10
- Adam Smith Ovunda(2015)、Luca Pacioli's Double-Entry System of Accounting: A Critique. *Research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6(18), 132-139
- John B. Geijsbeek(1914)、Lucas Pacioli's treatise(A.D. 1494-the earliest known writer on bookkeeping) reproduced and translated with reproductions, 이원로역(2011), 1494 **베니스 회계**, 다산박스
- L. LAUWERS and M. WILLEKENS(1994)、Five Hundred Years of Bookkeeping A Portrait of Luca Pacioli, *Tijdschrift voor Economie en Management*. XXXIX(3). 289-204
- Max Weber(1920),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박성수(2021),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 Loraine Boettner, *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 김남식・홍의표역(1996), **칼빈주의 예정론**, 도서출판 베다니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루카 파치올리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 고찰	발표자	이선복
		논찬자 (소속)	이명헌 (인청대 교수)

이 논문은 루카 파치올리의 부기론에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고찰하고, 그의 업적과 루터 및 칼빈을 비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그의 부기론의 내용을 요약한 후, 부기론에 투영된 기독교 사상을 신용의 중요성 강조, 장부에 하나님 이름과 십자가 표시, 마감에 대한 신앙적 태도 등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파치올리의 업적을 회계학 보급에 대한 기여, 상인의 회계장부 작성에서의 신앙고백적 기초 제시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루터나 칼빈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가 누렸던 부와 명예, 교황과의 친분 및 그의 부기서의 번역 문제를 들고 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추가적 설명이 이루어진다면 파치올리의 업적의 가치를 더 정확히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파치올리의 summa 가 유럽전역에 번역 확산된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서술해주면 그의 업적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요한 언어로 볼 수 있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된 시점과 그 인쇄판수, 판매부수 등에 대한 자료를 찾아서 제시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복식부기가 보급된 정도와 개신교의 보급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루터의 팜플렛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판매부수가 그들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둘째, 8쪽에 번역이 ‘회계적 기법을 강조할 뿐..신앙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번역과 원본의 차이가 있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렇다면 번역과 원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대조를 통해서 알려준다면 논문의 논지가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이다. 그러한 번역 양상을 통해서 주요국에서 파치올리의 사상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4쪽 이하에서 설명한 파치올리의 회계와 관련한 기독교적 권고들(회계 장부 시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를 표시할 것, 장부 보관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관, 장부가 바뀔 때와 오류를 교정할 때 십자가 표시를 할 것)이 얼마나 현실에서 관행으로 행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만약, 그러한 제안이 실제 관행으로 별로 행해지지 않았다면, 파치올리의 업적이 루터나 칼빈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